

TV 16일

★일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통통튀는'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 인기

참신하고 솔직하지만 선정·자극적 소재로 논란

2007년 SBS의 '스타킹'을 필두로 tvN '화성인 바이러스'와 '화성인 엑스 파일',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SBS '짹'까지 많은 일반인 출연자들이 연예인을 대신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일반인 출연자의 가장 큰 무기는 참신함과 솔직함. 이미지를 의식해 '뻔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 출연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일반인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며 "프로그램의 형식만 정해져 있으면 매년 새로운 이야기로 꾸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청률 1%에 불과한 제작진 처지에서 '통통 튀는' 일반인 출연자는 분명 반가운 존재다. 그러나 기존 연예인 위주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자극적·선정적 사연을 그대로 소개하고픈 유혹에 빠지기 쉽다.

케이블 채널 tvN의 인기 프로그램 '화성인 엑스 파일'은 지난 5월 1일 사계절 내내 노출 패션을 즐긴다는 '탄제리니'를 소개했다.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갖게 된 옷도리에 가터벨트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과 이에 경악하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여줬다.

비슷한 콘셉트의 tvN '화성인 바이러스'도 종이를 먹는 'A4쌈녀', 남자친구가 매주 바뀐다는 '1주일 남자 환승녀', 비틀·각질·눈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곰·귀지까지 먹는다는 '노페콜 흡입남' 등 자극적인 소재의 출연자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19금' 성교육을 시킨다는 사연을 가진 출연자가 등장했다.

MC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는 7살 때부터 부모님과 성인영화를 봤다", "아빠는 말이 다 중학교 때 자위를 했어요" 등의 표현을 썼다.

프로그램은 이후 출연자에게 얽힌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지만, 밤 11시 온 가족이 시청하는 '황금시간대'의 소재로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짹' 말레이시아 특집 편에서는 남녀 출연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도 연예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선정적 소재의 종류·정도·노출 시간이 다른 만큼 심의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음 5월 27일 戊寅)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Table with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Korean/English, Chinese, and Japanese. Each column includes a lesson title, a short story or dialogue, and a vocabulary list.